

國際入札情報

印度 近間 DAP 入札 發表視

商社情報에 依하면 印度 MMTC는 지난 6月 15日 入札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美 AID 資金으로 肥料入札을 實施할 것을 檢討中인 것으로 傳하고 있는데 AID 資金 總額은 3,500 萬弗로 一時에 尿素 및 DAP를 購入할 計劃이라고 함. 한편 一部 消息通에 依하면 尿素를 除外, 3,500 萬弗 全額으로 DAP를 購入할지도 모른다고 함.

또 한편 一部情報에 依하면 파키스탄(FDFI)도 美 AID 資金으로 DAP 14 萬 5,000 吨에 對한 入札을 實施한다고 發表한바 있으니 日本 業界에서는 其間의 動向을 살피 이들中 한군데에만 入札 參加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요르단품 9萬屯, 美Phoschem品 7萬屯

印度 DAP 15萬屯入札의 ~~落札~~內定結果

印度 MMTC는 지난 6月 15日 自己資金으로 DAP (18-46) 15萬屯의 入札을 實施했는데 現地情報에 依하면 이 入札에서 MMTC는 價格等에 對해 供給側과 Nego 結果, 요르단肥料의 요르단품 9萬屯과 美Phoschem의 美國品 7萬屯 計 16萬屯의 落札을 內定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落札價格은 요르단품이 FOB Bulk 193弗 (當初 offer 198弗), Phoschem의 美國品은 FOB Bulk 176.85弗 (當初 offer 182.50弗)에 內定되었다 함.

이번 MMTC의 DAP 入札에는 美國品을 主體로 51萬~61萬餘屯의 offer가 있었는데 價格은 最低值가 FOB Bulk 179弗線이고 最高值는 요르단품의 198弗로서 大體的으로 180弗前後線이었다. 其間 MMTC는 各 供給側과 價格에 對해 Nego 結果 供給側도 어느정도 應할 움직임을 벌여 왔기에 結局 요르단품은 當初 offer 價에 비해 5弗, Phoschem는 5.65弗씩 各各 引下할 것에 合意를 봄으로써 이번 Nego가 成立된 것으로 傳하고 있음.

한편 이번 印度入札에서 요르단품은 新規磷酸工場의 稼動後 最初의 登場品으로 國際市場 競爭에서 成功하므로서 美國으로서는 하나의 脅威의 存在가 되고 있다.

落札内定 結果는 다음과 같다.

供給者	origine	落札(吨)	FOB Bulk (\$)	船積期
요르단肥料	요 르 단	60,000	193.00	8 ~ 10月
''	''	30,000	''	-
美 Phoschem	美 國	50,000	176.85	7 ~ 9月
''	''	20,000	''	-
計		160,000		

버 - 마 5月17日 肥料入札結果

TSP : 터키品, MOP : 西獨品

最近의 非公式情報에 依하면 버 - 마農業公社 (AC)는 지난 5月 17日 尿素 8萬吨, TSP 7萬吨, MOP 1萬5,000吨에 對한 入札을 實施한 結果 TSP는 Trans Ammonia 의 터 - 키品, MOP는 SEAFCO 의 西獨品等이 全量 落札되었다 함.

價格은 TSP가 FOB Bag 160弗線 (一說은 150弗線) MOP는 FOB Bag 220 西獨마크線이라 함.

한편 尿素는 쏘련品 (FOB Bag 330 西獨마크)이 落札된 것으로 傳하고 있는데 一部 情報에 依하면 最終的인 決定은 近日中에 發表될 것이라 함.

파키스탄 7月7日 DAP入札

美 AID 資金으로 14萬餘屯 購入

파키스탄은 지난 7月7日 美와 신문, 關係機關이 美 AID 資金으로 DAP 14萬5,000 屯에 對한 入札을 實施했는데 入札參加資格은 美國 origine 品이어야 하며 船積條件은 8월에 7萬5,000 屯, 9월에 7萬屯으로 Bulk with Bag 라 함.

이 入札은 지난번의 印度入札에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 그간 美 DAP 의 大幅的인 生産調整으로 因한 在庫減少와 同時에 美 phos-chem 가 maker 의 採算面을 고려 FOB 170 弗線 價格으로는 向後 輸出하지 않을 것을 強調하고 있는지라 이번 入札에서 어떤 價格과 어느程度의 物量이 應札되었는지 對해 業界에서는 注目視 되고 있다.

파키스탄, 7月7日 複肥 1萬屯入札

파키스탄 肥料輸入公團(FDFI)은 지난 7月7일에 複肥(10-20-20) 1萬屯에 對한 入札을 實施했는데 購入條件은 自己資金 혹은 Barter 方式으로 購入할 것이며 船積은 8~9月이라 함.

한편 이 入札에 日本業界에서는 海外品과의 競爭力弱화로 不參했으며 歐州品 및 韓國品 등이 入札에 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京畿化學이 全量 應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